

大學院教育, 무엇이 문제인가

韓 駿 相

(延世大 教育學科)

소크라테스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평생동안 헛 없이 애를 쓴 결과 얻은 결론이었다.

—Allan Bloom, 1987—

그가 이르렀던 그 경지에로 한발자욱도 나아가보지를 못했기에 세상만사 여러 가지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다. 大學院教育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편견을 갖게 된다. 불륨이 요구했듯이, 강한 편견은 사물의 질서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며, 그 비전은 하나의 빛처럼 모든 사물의 질서와 순리를 찾아내는 점성술과 같은 것과 같은 것으로서, 전체 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꿰뚫어 나가며 전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편견은 강할수록 좋다.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한 두 가지 잘못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단아하게 지적해 줄 여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시작할 처음부터 아무런 편견없는 마음은, 쾡하니 구멍이 뚫린 그리고 텅빈 마음일 뿐이다. 그런 마음은 끝내 편견을 편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에서 늘 경험되는 그런 잠음일 뿐이다.

1. 卓越性에 대한 불감증

우리나라의 大學院教育은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길을 찾는 정신무장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상태, 어찌보면 탁월성 부재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는 강한 편견을 갖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편견은 '탁월성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대학의 문화병처럼 창궐하고 있다는 절망으로부터 비롯된다. 학문적 탐구활동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할 대학원교육의 정신인 탁월성이 대학원교육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살상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말할 정도로 수북이 널려 있다.

첫째, 대학교육 속에서 차지해야 될 대학원교육의 位相이 모호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도대체 대학원교육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각각이 부실한 형편이다. 대학원교육은 대학교육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인가? 대체로 어느 대학원이든 그 대학원은 하나의 독립된 행정체제 아래 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수만큼의 전공학과를 백화점처럼 나열해 놓고 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대학원교육이 학부교육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우길 수 있는가? 대학

원교육 역시 가르치고 탐구하는 교수, 탐구하며 배우는 학생, 그리고 탐구하게 하고 가르쳐야 될 지식들인 교과내용과 교육방법으로 구성되는데, 과연 대학원교육은 학부교육에 비해 그런 조건에 있어서 우수한가?

둘째, 어째서 일반대학원 교육과 ‘특수대학원’ 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하는가? 一般大學院은 학자를 양성하고 반대로 特殊大學院은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 재교육과 전문훈련을 시킨다고들 한다. 과연 일반대학원은 학자스런 학자들을 양성하고, 특수대학원은 훈련다운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일반대학원은 이미 학자양성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수준 높은 대학원교육을 받고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교육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학문적 탐구행위의 기여와 문자활동능력이 기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써내는 글이나 논문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읽는 글들을 보아도 그렇다. 자기의 전공영역을 한치만 벗어나도 그들의 知力은 허약해진다. 아예 그들이 그들의 정신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들이 고작 한다는 소리는 어렵다는 말로 일관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단어가 그들의 몸에서 배어 있다.

글 읽기 그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사용하는 습관적인 그 어렵다는 말은, 읽기에 대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지성적 활동의 부실함과 허약함에서 나오는 고칠 화된 빈말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대학원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의 문자활동수준은 지식 이해수준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準文盲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수대학원 역시 전문교육훈련에 대해 염증을 내고 있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방통대를 나온 사람, 석사학위가 필요한 공무원들과 이러저러한 사람들, 교사자격증이 필요한 사람, 군복무를 기피하고 싶은 사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사업상 졸업증이 필요한 사람 등등의 특수한 교육적 사정을 들어주기 위한 학위구제체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슨 학문적 탁월성이나 전문적 훈련이 가능하겠는가?

셋째, 우리에게 있어서 대학원장직은 과연 무엇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탁월한 대학원교육을 시키고 있는 서구의 대학들은 大學院長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행정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대학의 학문적 권위이자 학문적 상징으로 간주한다. 학문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 젊은 학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거목다운 큰 학자를 대학원장으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일차기 교수들은 오히려 대학원장직을 두려워할 만큼 학문적인 명예직이다. 이런 서구 대학원의 현실은 우리에게겐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학원장직은 하나의 기능직이며 놀이직 같은 하나의 보직일 뿐이다. 우리 대학원교육에 대한 이런 엄청난 지적들은 우리의 대학원교육이 학문적 탁월성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음을 알려 줄 뿐이다.

2. 學位의 인플레이션

마치 잡화상처럼 너절하게 널려 있는 이런 식의 대학원교육이 과연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교육법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바로 대학원이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이 말은 대학원이 대학보다 상위에 위치해서 대학에서 이뤄내지 못한 학문적 수월성을 더 추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학문할 수 있는 학문탐구의 기회를 개방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를 빙자해서 요즘에는 대학원중심교육이라는 말이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말들이 대학가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다니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중심교육이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말은 대학의 속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대학교육 하나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거론되는 대학원중심 대학교육에 대한 주장은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회피로 들릴 수도 있다.

대학교육을 건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대학원교육이 건강해질 수 없다. 대학교육을 담보로 삼아 대학원교육이 강화된 대학이 있다는 사례는

서구의 명문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학부교육을 두지 않은 대학원교육은 탐구활동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만 단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다.

학부교육을 담보로 삼는 대학원교육은 教育的 僞善일 수도 있다. 건강한 학부교육을 포기하는 대가로 모든 대학에게 대학원교육을 확대하거나 무리하게 대학원을 개방시키는 일은 학위의 인플레이션이나 부추기게 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강요되는 대학원교육에로의 개방은 오히려 대학원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촉발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학원교육에로의 교육기회 확대는 '지적 회열'을 위한 학문적 도전을 향한 개방이어야 한다.

知的 喜悅은 대학이라는 학문의 공동체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탐구해 보고, 꿈과 이상이라고 비웃음당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보이도록 노력해 보며, 금지되어 칠해볼까 침한 것이라고 신성시 되는 것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실험정신이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또 그것이 진지하게 추구되는 동안에만 맞출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이다. 대학원교육은 이런 지적 회열을 가져다 줄 지성인을 기르는 곳이다.

우리 대학에는 아직까지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예프스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데카르트나 파스칼, 아인슈타인이나 갈릴레오, 페스탈로치나 듀이, 허친슨 같은 대학총장이나 지식인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부족할 뿐이다. 한국의 대학원은 이런 지식인들의 출현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목마름은 우리의 문화나 삶의 풍토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학, 우리 지식인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지적인 갈증일 뿐이다.

3. 大學院教育의 기능

대학원교육의 현대적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대학들은 우리처럼 황망하게 대학원교육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학의 기능은 세 가지 중의 그 어느 한 가지였지 우리의 대학들처럼 그렇게 혼돈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이들이 시작한

대학원교육은 연구 그 자체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고, 그동안까지 혼란스럽게 나열되던 여러 가지 대학의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綜合的 教育政策의 결실이었다. 대학의 기능,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뉴먼(Newman, 1947)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은 첫째로 그 사회의 지성과 문화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길러내는 곳이어야 했다. 그러니까 대학의 목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와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정신과 마음을 도야하는 그런 곳이며, 지식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배우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갖는 데 있다.

대학의 목적에 대한 두번째 이해는 야스퍼스(Jaspers, 1959) 같은 이가 주장한 것으로, 대학은 그 자체의 영역이나 사회에서 그들이 익히고 닦은 전문적인 식견과 탐구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전문가나 학자들을 교육·훈련시키는 곳으로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연구와 가르치는 일이며,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탐구해야 될 지식의 범위나 내용은 무한정하게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은 대학교육이 갖는 지식획득의 도구적 기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일군의 학자들, 말하자면 갈브레이드(Galbraith, 1958) 같은 학자들은 지식의 도구적 기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내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라고 본다. 대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기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과 사회에 벽이 없어야 한다. 학자들은 일반인보다는 우수한 두뇌와 지식, 그리고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정치·경제·교육 부문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합시킨 생각이 바로 클라크 커(Kerr, 1963) 교수의 '다기능 대학론'(multiversity)이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절대불변의 진리와 지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

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도 해야 된다. 또 그것과 더불어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회봉사자 활동도 해야 되는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학의 기능론이 현대적인 대학론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학의 3대 기능을 연구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로 집약하고 있다. 연구하는 일은 지식의 생산(production of knowledge)으로 대표되며,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은 지식의 보급(dissemination of knowledge) 활동이며, 마지막으로 사회를 위한 봉사는 지식의 활용(application of knowledge)으로 집약된다. 대학의 기능이 이렇기 때문에 학부교육과 학생지도를 단보로 삼거나 학부교육을 희생시킨 결과로 얻어지는 대학원교육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무익할 뿐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원교육은 학부에게 教育的 犧牲을 강요하면서 학부교육의 건강을 잡아먹으며 그들 주위에서 서식하고 있는 음지성 식물과도 비슷하다.

대학원교육의 정신은 탁월성 추구에 있으며 그 정신은 지식의 생산에서, 지식의 보급에서 그리고 지식의 활용에서 있는 그대로 작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구하는 일 그 자체가 학자의 사명이며, 학생을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학자의 도리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 학자에게 맡겨진 소임이기에, 연구비가 없어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부끄럽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 지적 탐구에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말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보면 대학원이 있는 곳에서 연구하는 교수는 더욱더 열심히 글도 쓰고, 더욱더 열심히 학생도 지도하며, 더욱더 열심히 사회의 각종 모임에도 참여해야 될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

4. 大學院教育의 문제

우리나라 대학원교육에 곤욕을 주고 있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도 긴요한 탐구과제를 몇 개의 덩어리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원의 사회적 가치정립 문제

- ② 연구인력 양성과 훈련 문제
- ③ 대학내에서의 위상정립 문제
- ④ 행정 지원체제정립 문제
- ⑤ 각종 연구소 활동간의 연계 문제
- ⑥ 산학협동 문제
- ⑦ 학제간 협동교수제 활용 문제
- ⑧ 1인당 교육비 절감 문제
- ⑨ 학부교육과의 연계 문제
- ⑩ 교수의 질 관리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대학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문제제기된 각종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면서도 끝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의 초점을 모아야 할 기본정신은 대학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이 정신은 대학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질을 대학원교육이 요구하는 탁월성의 과제에 맞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원 중에서도 연구와 개발에 관한 학문적 경쟁이 가장 치열한 300여 이공계(engineering) 대학원 중에서 상위권 25개 대학원(the top 25)의 우선순위를 가르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들은 학계의 판단, 현장의 판단, 학생들의 판단, 연구활동, 연구를 위한 지원정도, 연간 연구비, 교수 대 학위과정 학생수 비율, 교수의 질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도 대학원교육의 우열을 가리는 주요 요인으론 간주된 것은 교수의 자질과 연구능력이었다.

5. 大學院 評價認定制의 문제

우수한 대학원교육과 건강한 학부교육을 유도해내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학과평가인정제'가 실시되고 난 후부터는 어느 대학이 얼마나 우수한 학과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각 대학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어느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뒷소리가 더 무성하다. 평가받기 1주일 전부터 열방의 다른 연구소 뗏말을 떼어버리고 평가받을 학과 연구소의 실습공간을 늘리기 위해 새 명패를 달았다든가, 신입교수수를 별안간 늘

〈표 1〉 미국의 이공계 대학원 순위 (the top 25)

('93. 3. 22 일자)

Rank/School	Overall academic scores	Reputat- ion rank by practic- ing eng- ineers	Rep. rank by Student selecti- vity rank	Resea- rch activ- ity rank	Facu- lty resou- rces rank	1992 Total enroll- ment	1992 Eng. research	Doctoral student/ faculty ratio	
1 M.I.T.	100.0	1	1	22	1	3	2,315	\$ 132,466,000	2.52
2 Stanford Univ.	87.2	2	3	73	3	1	2,688	\$ 59,875,828	5.24
3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84.8	2	5	27	6	4	2,264	\$ 80,509,000	2.82
4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81.6	2	7	34	10	2	1,527	\$ 53,300,000	4.66
5 Purdue Univ. (Ind.)	80.3	8	4	41	7	10	2,076	\$ 62,096,400	2.36
6 Univ. of Michigan	79.9	6	6	92	9	6	1,799	\$ 63,316,579	2.63
7 Cornell Univ.	76.3	6	13	37	5	9	999	\$ 58,720,000	3.27
8 Univ. of Texas at Austin	75.4	8	10	51	8	8	2,119	\$ 58,556,115	3.30
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72.3	8	2	42	24	12	2,511	\$ 44,040,000	2.32
10 Carnegie Mellon Univ. (Pa.)	71.8	8	16	18	4	26	819	\$ 63,866,000	2.23
1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70.7	2	8	10	23	19	469	\$ 23,998,785	3.70
12 Univ. of Wisconsin at Madison	67.6	8	15	62	13	18	1,567	\$ 52,449,700	2.51
13 Pennsylvania State Univ.	67.5	14	11	99	12	16	2,022	\$ 55,078,000	1.75
14 Texas A & M Univ.	66.7	18	12	56	14	17	2,056	\$ 49,907,596	2.04
15 Ohio State Univ.	66.3	18	9	40	17	31	1,296	\$ 42,805,005	1.96
16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N.Y.)	63.4	14	14	129	15	22	1,256	\$ 34,717,706	2.38
17 Northwestern Univ.	62.5	18	23	23	22	7	1,060	\$ 27,066,662	4.88
18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62.2	14	26	85	21	5	1,012	\$ 29,902,411	6.35
19 Univ. of Southern California	61.5	29	41	113	2	15	2,367	\$ 57,366,290	2.41
20 Princeton Univ.	59.1	13	21	19	25	46	380	\$ 22,087,000	2.46
21 North Carolina State Univ. at Raleigh	57.0	29	19	64	19	37	1,268	\$ 40,593,970	1.27
22 Virginia Tech	57.0	18	18	93	29	23	2,247	\$ 35,400,260	1.42
23 Univ. of Minnesota at twin Cities	56.6	14	17	35	81	11	1,303	\$ 15,928,331	2.70
24 Univ. of Washington	56.0	18	22	2	45	40	1,292	\$ 21,230,881	1.85
25 Univ. of Florida	55.8	29	19	126	18	29	1,545	\$ 38,560,536	1.75

* Schools with the same numbered rank are tied. USN&WR—Basic data: Educational statistics from College Counsel Inc. and the colleges themselves. Reputational surveys conducted by Market Facts Inc.

려 학생 대 교수비를 줄여놓아 평가를 후하게 받았다는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비한 점호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이 그런 것을 모를 리 없건만, 나타난 장부와 모양이 평가항목에 따라 구색을 맞추고 있는 이상, 그런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학과에는 형식적이라도 성의를 봐서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학으로서는 어떠한 평가든 굉장히 중요할 것

이다. 지난 '91년도에 교육부의 수도권 이공계 학생정원 책정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중앙대학교가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는 점을 대학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급년의 입시부정사건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대학의 학부마저도 우수학과 대열에 끼인 것을 보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남의 말이 아닌 성싶다.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학교육협의회마저도 평가인정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평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염려해 평가인정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평가인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대학원교육의 질은 평가표에 나타난 몇몇 가지 항목에 의해 결판날 성질은 아니다. 일전에 노벨상을 받은 미국 뉴욕 주립대의 안 교수가 일본의 동경대 이공계 실험실을 둘러본 후, “동경대 실험실 설비는 미국 직업고등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동경대 총장의 얼굴을 붉히게 만든 일이 있는데, 그 교수의 수준으로 우리 이공계 대학원의 질을 평가하면 아마 심중판구는 유치원 수준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토리 키재기로 재서 나타난 그런 평가나 결과에 대해 대학들이 더 이상 폐기고 자위하거나 낙담할 일도 아닐 성싶다.

6. 教授의 질과 學問의 질

학문의 질과 대학원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과 정비례한다. 교수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지 않은 대학원에서 대학원교육이 우수하게 실시될 리가 없다. 제한된 학문분야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교수를 제외한 대학교수들의 일반적인 연구분위기를 하나의 감으로 말하자면, 한국 교수들의 ‘연구정년’은 대학이라는 직장에 입사한 후부터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교수라는 직업상의 정년은 연령상 만 65세이나 그들의 ‘學問停年’은 고작해서 만 50~55세 정도면 끝나버리게 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닌 성싶다.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학문사회에서는 대학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이상 된 50대 이상의 학자들이 이렇다하게 내놓은 참신한 저서 하나가 없다. 이렇다할 만한 논문, 아니 후학들이 감쪽놀라게 반성할 만한 연구물 하나를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기껏 출판된다는 것이 개론서 정도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학계의 학문적 수준은 개론서 수준이라는 야유에도 무덤덤하기조차하다. 무릇 교수는 생각과 글로 먹고 사는 ‘글쟁이’이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은 한 두개쯤 있어야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만의 편견이 담뽁 담긴 저서

는 고사하고, 사회에 충격을 줄 만한 에리한 평론 한쪽을 기대하기조차 힘든 형편이다. 실령 학문정년이 55세에 끝난다고 해도 그 이후부터 더욱더 성숙해질 수도 있는 그들의 지혜를 포기한 채 자기가 쌓은 한평생의 지적인 삶을 회갑논문집 증정으로 집대성시키려는 것 같은 관습은 없어야 한다. 기껏해야 몇 푼의 돈으로 글쓰기 하청이나 쥐서 얻은 글이거나, 열정이 식은 동료들의 글을 잡다하게 묶은 글더미에 자기주장이나 논리를 뒤틀어박아 놓은 편집 묶음 책을 자기의 지적 업적으로 자랑하는 일도 대학원교육을 병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실, 연구용역에 정신을 잃어매 놓은 정책보고서 출판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풍토 상황 속에서는 ‘학문정년’ 55세도 어찌면 너무 후하게 쳐 준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나 같은 교수 나부랭이는 50세 정도에 학문정년을 끝내놓고, 65세가 될 그때까지 나머지 15년을 교수라는 직업인으로서 한평생을 즐기려고 단단히 작정하고 있는 직업꾼이라고 야유하는 내가 잘 아는 ‘강 선배’에게 늘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심포지엄보다는 일상적인 먹자판 속에서 사상성 담긴 학문적인 이야기나 남의 업적을 칭찬하기보다는 남 흠집내기나 일삼는 현실이 있고 보면, 그런 주눅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구정신에 파릇파릇한 대학원생들에게 ‘探究文盲’이나 ‘學問文盲’의 자질이나 심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학문적으로 죄악에 속할 것이다.

대학원생을 가르치면서 그가 교실에서 행하는 강의가 고작해서 ‘인간수면제’ 같이 그 언제나 학생들이 졸립게나 만드는 기능으로 제한된다면, 그것은 대학원생의 혼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자조는 교수에 대한 질 관리의 허술함을 방어하고자 하는 약삭빠른 변명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원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어설픈 교수 나름대로의 변명일 수도 있다.

7. 教授의 學者的 속성과 質

도대체 대학원교육에 있어서 교수의 질 관리가 가능한가? 교수의 ‘質’(quality)이란 무엇

을 의미하기에 교수의 학자적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가? 교수의 질이란, 첫째로 학자로서 갖추어야 될 당연한 속성을 갖추었느냐 어떻냐로 구분될 성싶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맺지 못하고, 수영선수가 수영을 못한다면, 그들은 사과나무의 질이나 수영선수의 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교수의 질을 이야기할 때 그 질은 같은 업종에서 양식있는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는 학자적 업적, 즉 교수로서 이룩해 놓은 그간의 學問的 業績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물론 이 영역 속에는 가르치는 일이나 사회봉사의 질 같은 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학자에 대한 일차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은 학문적 탁월성에 있기 때문에 교수의 질은 그가 그동안 발표한 글이나 저술이 어느 정도로 탁월성을 지니고 있느냐로 결판이 나게 된다.

교수의 질이 의미하는 세번째 뜻은 교수라는 직업이 누구를 위한 業이냐에 관계된 것으로서 교육의 소비자인 대학원생에게 얼마나 만족스런 봉사를 하느냐 하는 정도로 표시된다. 결국 그것은 대학원생에게 학자답게 탐구하는 품격과 학문적 수월성을 제공하는 교수만이 교수의 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학자의 질, 교수의 질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수의 질을 논의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서 교수의 질 관리문제, 교수의 질 확인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의 질에 대한 평가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원의 질을 보존하는 지름길이다.

1) 교수의 질 管理 문제

교수의 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그 첫째는 플라톤에서 이소크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철되어 온 학자적인 양식과 아카데미아로서의 대학원이 지녀야 할 敎育的 義務性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 둘째는 자 대학과 대학원이 여타 대학원과의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일류대학과 이류대학 간의 학문적 차별성이나 학문경쟁에 있어서의 경쟁이 거세된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대학원 풍토에서 본다면, 교수의 질 관리는 참으

로 어려웠던 것 같다.

한국에 대학이 들어선 이후 대학의 교수로서 직업을 택한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에게 교수의 질 관리는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꺼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의 질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수의 질은 일차적으로는 교수집단이나 학교기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할 영역은 교수방법의 적절성 여부로부터 연구자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교수의 질 確認 문제

대학원교육의 학문적 수월성은 교수의 질 관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관리된 교수의 질을 교수 모두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교수의 질 관리에 대한 결과가 대학원교육의 內實化와 합리적 경영에 반영되도록 그 질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수의 학자적인 질 확인은 학과 수준에서, 대학교 수준에서 보증되어야 하나,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로부터도 그런 것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수가 학구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에 함부로 그것의 채택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기가 손쉽지는 않다. 또 우리 대학의 현재 정신상태로서는 그것의 즉각적인 도입을 기대할 수 없기는 하지만, 서구의 대학원에 비해 처져 있는 우리의 대학원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언젠가 대학인의 손을 거쳐야 되거나 심각하게 논란되어야 할 그런 엄청난 과제이다.

3) 교수의 질 評價 문제

교수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교수의 건강에 대한 정기검검과 같은 수준으로 수용되어야 하나, 그것을 知的 死刑宣告 줌으로 오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원교육의 현실은 대학원교육의 탁월성을 위해 부담이 될 뿐이다. 교수가 학생의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닌 것처럼,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함당하고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동료교수간의 정감 매

문에 그런 일이 힘들다면, 최소한 대학교 기관 수준에서는 교수업적에 대한 공평한 평가제와 그에 합당한 능력보상제 같은 것이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학 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면, ‘대학원연합 교수업적심의회’ 같은 것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문적 탁월성 유지에 대한 학문적 문맹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과 같은 농도로 대학원에 대한 기관평가 역시 언론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부실한 대학원은 도태될 수도 있음을 늘 경고받아야 한다.

8. 學問의 卓越性 유지의 열쇠

미국 대학 가운데에서 우수한 명문대학교는 교수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회적 위신을 정당하게 누리고 있고, 또 그 때문에 높은 등록금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실시되는 철저한 교수의 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은 종신교수제 도입에 의해 정년까지 교수직이 보장된 교수(tenured professor)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야단들이다. 그래서 학교의 학구적 명성과 대학원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正教授職 淨化運動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성질이 다르지만, 조기 정년퇴직제도 활용도 확산되고 있다. 조기정년퇴직을 하려는 교수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미국의 대학원은 오히려 저명한 학자들을 대학원에 모셔두려고 교수우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의미심장한 연

구물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교수들에게는 그의 또 다른 공헌을 기대하기 위해 학부과목을 더 배당시키고 있으며, 연구하는 교수에게는 그에 합당한 연구기금을 더 지원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우대받아야 될 사람은 더 우대해 주는 ‘메리트’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교수의 수가 많은 학과는 연구상의 학구성과 탐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학과라는 판단 아래 조교수와 부교수에 대한 연구 우대책을 강화하면서, 한과당 조교수와 부교수 그리고 교수 간의 비율을 5:2:1 정도로 낮추고 있다. 어찌보면 정교수가 많은 학과는 정말로 학문적 탐구성의 효율이 떨어져가고 있는 학과일런지도 모른다. 또 어찌보면 교수직에 대한 재계약은 정교수가 된 그 다음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비로소 죽어있는 학문적 탁월성이 대학에서 되살아 날런지도 모른다. 이런 정풍운동은 미국에서도 어려운 일이었기에 패기에 찬 허친스나 코난트 같은 40~50대 초년의 총장이나 대학원장만이 과감히 해낼 수 있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해냈기에 비로소 지금까지 세계를 향해 큰소리치는 하버드, 스탠퍼드, 시카고 대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원장직은 넓은 방에 앉아 결재나 하려는 사람에게겐 감옥’일 뿐이라는 그들의 신조는 大學院 教育의 卓越性을 되찾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 모두가 한국의 대학원교육에 있어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편견으로 밝혀지는 날 우리 대학원교육은 제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자부할 것이다. ■